외국 예술인들도 사찰음식에 '흠뻑'

무각사, 2018 광주비엔날레 관련 전시회 개관



해외 예술인들을 위한 특별전시회와 사찰음식 만찬이 열렸다.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는 9월 5일 경내에서 광주비엔날레 참가 외국 예술인과 관계자들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8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프로젝트' 전시회 개관과 사찰음식만찬을 진행했다.〈사진〉

파빌리온 프로젝트는 해외 유수 미술관의 작품을 광주에서 감상할 수 있고 신진작가와 지역작가의 작품을 해외 미술관에 전시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비엔날레 메인전시관을 비롯해 무각사, 광주시민회관, 남구 이강하미술관 등지에서 동시에 개최된다.

이번 무각사 특별전시는 핀란드, 한국 작가 5명이 공동 작업해 과거와 현재, 개인과 집단, 미시적 시선과 거시적 시선까지 전시 공간인 무각사의 환경과 어우러져 상호 의존성과 연속체로서의 가치를 보여준다.

이어진 사찰음식 만찬에는 2018광주비엔날레에 참여한 국내 · 외 작가와 예술인들이 함께했다. 프랑스, 미국, 아시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 참가한 예술인들이 참여해 한국 사찰음식의 풍미를 느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시법회서 고민한 불교발전 방안

불교중흥실천협의회, 원인 스님 선시법회 열어

불교 음악과 문화로 성큼 다가온 가을을 만끽하고 선시와 함께 불교 중흥을 논하는 법회가 열렸다.

불교중흥실천협의회(의장 안국)는 9월 1일 부산 금강공원 일대와 금어사에서 '원인 선사와 함께 하는 선시(禪詩) 법회 별이 빛나는 밤'을 개최했다.

불교중흥실천협의회는 선시법회를 개최하고 '이 시대 불교중흥을 위한 제언'이란 불교발전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에는 영주 대승사 회주 원인 스님과 불교중흥실천협의회 안국 스님, 부산교수불자연합회장 장상목 동아대 교수, 현익채 법사(前금정중학교 교장), 김정혁 동아대불교동아리 회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사찰 재정 관리 투명성을 강조하며 관리 및 운영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승려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행자로 마지막까지 청정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상목 교수는 "행정과 재정이 분리돼야 한다"며 "행정을 주관하는 총무원장과 재정을 담당하는 재무 처장과 감사들은 모두 독립 선출 돼야한다"며 "수행성의 노후 보장을 비롯한 스님들의 복지정책이 최우선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원인 스님은 "조계종 종단사찰재정을 투명하게 통합 관리해야 한다"며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승가의 모든 복지 문제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범어사 하행로 양방통행 개통

10월 중 공사 예정인 범어사 하행로가 양방통행으로 바뀐다. 범어사 하행선 양방통행으로 12월 개관 예정인 범어사 선문화교육관 접근이 편리해져 템플스테이 및 선문화 체험 등 내 · 외국인 전통불교 문화체험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부산 금정구는 "범어사 하행로 일방통행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과 범어사 방문 관광객 및 신도들을 위해 2015년부터 정비를 시작해 10월 개통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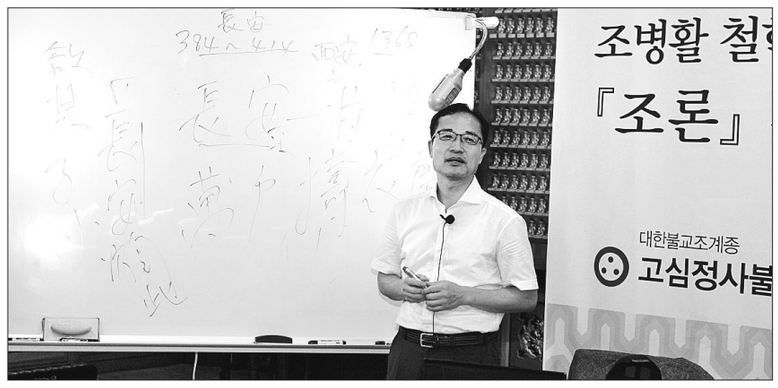
범어사 하행구간은 범어사 매표소에서 상마마을과 금샘로 삼거리까지 총 1.85㎞ 구간으로 사업비 39억 원이 투입됐다. 일방통행로는 양방통행으로 바뀌면서 기존 폭 12m에서 16m로 확대됐다. 아울러 범어사 주차장 일부를 정비해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소통을 도왔다. 한편, 범어사 상행로는 기존 일방통행이 유지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론〉으로 반야 지혜 펼친다

고심정사, 불교대학 강의 개설… 조병활 박사 맡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고심정사 불교대학이 승조 스님의 〈조론(肇論)〉을 살펴보는 강좌를 개설했다. 특히 백련불교문화재단의 후원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조병활 박사가 직접 강의해 뜻 깊은 인연으로 훈훈함을 전했다.

중국 역사상 불교가 가장 널리 알려지고 연구됐던 수 · 당나라 시대를 연 승조 스님의 〈조론(肇論)〉을 살펴보는 강좌가 고심정사에 개설됐다. 특히 백련불교문화재단에서 후원해 학위를 취득한 조병활 박사가 직접 법사로 나서 더욱 뜻 깊은 강의로 훈훈함을 전했다.

고심정사 불교대학(학장 원택)은 9월 5일 고심정사 법당에서 〈조론〉 첫 강의를 시작했다. 〈조론〉은 중국 후진시대 승조 스님이 저술한 책으로 반야중관사상(반야공사상)을 담고 있다. 승조 스님은 당시 위진시대 유행하던 노자 및 장자의 현학 사상과 불교 핵심 가르침인 공(空)을 구분해 설명하고 불교의 가르침을 명료하게 전해 중국 내 불교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강의는 조병활 철학박사가 담당한다. 조 박사는 "이번 강의를 통해 반야중관사상을 토대로 〈조론〉을 해석하고 노자사상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명료하게 밝힐 것"이라 말했다.

조 박사는 "승조 스님은 중관사상에 달통한 구마라집의 제자로 중국에서 반야 사상을 최초로 설명한 분이다. 중국에서 각 시대마다 〈조론〉 주석서가 있을 정도로 유명하고 중요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도가 입장에서 〈조론〉을 접근해 아쉬운 점이 있다"며 "철저하게 반야 사상을 기초로 연구하고 강의를 마칠 때쯤엔 〈조론〉을 새롭게 해설한 책을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장 원택 스님은 "10여 년 동안 중국과 티베트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해 돌아온 조 박사에게 기대가 많다"며 "이번 강의를 통해 반야 공사상의 진수를 보여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중국불교 발전 기틀 〈조론〉
"노자 사상과 차이 밝힐 것"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강의
6개월간 중관사상 파헤친다

강의에 앞서 고심정사 불교대학은 조병활 박사의 학위 취득을 축하하며 강의 개설을 알리는 입재식을 봉행했다. 고심정사 불자들은 한 명씩 나와 장미꽃을 조 박사에게 전달하고 학위 취득을 축하했다. 이 자리에서 학장 원택 스님은 조병활 박사와의 인연을 설명하며 "모두 고심정사 불자들의 후원과 관심으로 조 박사가 무사히 공부를 마칠 수 있었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조병활 박사는 과거 불교신문 재직시절 원택 스님과의 인연이 시작됐다. 이후 중국에서 유학하며 중국어를 공부하고 입국하려다 원택 스님의 권유로 불교철학에 매진해 2012년 6월 북경대 철학과에서 북송 선종사상 연구로 철학박사를 취득했고, 2018년 6월에는 중앙민족대 티베트학연구원에서 티베트불교를 연구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조 박사는 "중국어를 공부하고 돌아오려는데 원택 스님께서 '중국어 잘하는 사람은 이미 한국에 넘친다'며 불교를 제대로 연구하고 돌아오라는 당부를 했다"면서 "10년이 넘는 유학 기간 힘든 점도 많았지만 백련불교문화재단의 후원과 여러분의 관심으로 무사히 공부를 마칠 수 있었다"고 인사를 전했다.

원택 스님은 "70여 년 동안 티베트어로 논문을 작성한 외국인이 없었다"며 "조 박사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앞으로 불교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심정사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부산에 널리 알리기 위해 창건됐다. 고심정사의 '고심(古心)'은 성철 스님의 해인사 백련암 고심원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고심정사 불교대학은 2005년 문을 열어 현재 기초교리반, 학과반, 경전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론〉 강의는 6개월 간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051)464-8450

각국 문화로 꽃피운 세계일화

삼광사, 제6회 연꽃문화제 세계전통음식도 함께 펼쳐



삼광사 연꽃문화제서 외국인들이 연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세계 각국의 음식과 문화로 소통하고 다양함을 인정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부산 천태종 삼광사(주지 세운)는 9월 2일 천태종 주최, 삼광사가 주관하는 '제6회 세계음식과 함께하는 연꽃문화제'를 경내 마당에서 열었다.

행사는 삼광사 주지 세운 스님과 재가불자 3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세계전통음식 시식 △다문화인을 위한 전통사찰 · 약선요리 소개 △각 나라별 놀이체험 및 의상, 인형, 모자 등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세계음식은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한국이 준비했으며, 전통놀이와 전시는 한국, 베트남, 몽골, 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가해 각국 문화를 선보였다. 이어 세계 전통춤과 음악으로 꾸며진 무대가 펼쳐졌다. 전통공연 무대에서 한국은 요잡바라 · 천수바라 · 도량게를, 베트남은 전통부채춤, 몽골은 더먹, 우즈베키스탄은 랴즈기를 각각 선보였다. 초청공연으로는 어린이합창단과 화엄합창단이 무대를 꾸몄다.

특히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로 구성된 레인보우팀이 한국 전통부채춤을 선보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삼광사 주지 세운 스님은 "세계일화라는 말이 있듯이 세계는 하나다. 진흙탕에서 꽃을 피우는 연꽃처럼 우리들 마음에 청정심을 드러낼 때 갈등,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오늘 세계 전통음식 어울림 한마당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자"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독거어르신 무료급식에 동화사스님들 직접 나서

소외계층 독거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에 팔공총림 동화사 스님과 신도들이 팔을 걷어 올렸다.〈사진〉

동화사는 직할포교당 보현사에서 8월 29일 사회복지법인 조계종 동화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자비의 집' 배식봉사를 펼쳤다. 봉사에는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을 비롯해 국장단 스님들과 신도회, 종무원들이 함께 동참해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400여 명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했다.

2004년부터 무료급식을 시작한 자비의 집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300~400여 명의 점심식사를 제공해왔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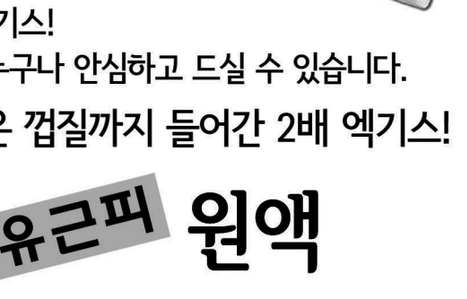
피부 · 치아 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 출혈, 흔들리는 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 건조, 임플란트 또는 틀니 하시고 윗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소화불량, 스트레스(화병), 가슴통증, 수행시상기증, 얼굴모낭충,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 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 (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 피부건조, 역류성 식도염, 위염, 대장염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굴셀健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